

연천군, 산단·교통 다 갖춘 '생태관광도시'

김태훈 | 승인 2022.01.21

BIX산단, 우수 식품업체 유치
그린바이오산업 거점 도약 목표
경원선 철도망 시대 준비 착착

유네스코 2관왕 생태평화도시
임진·한탄강 인프라 등 구축





▲ 연천군청 전경.



▲ 경원선 복선전철 연천역사 조감도.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이 올해 접경지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명품자족도시'로 도약한다. 연천군은 주요 사업을 명품자족도시, 복지건강 도시, 문화관광 도시, 생태평화 도시, 행복안전 도시, 자치교육 도시 등 6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특히 올해 마무리되는 경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연천BIX 은통일반사업 단지 분양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군은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연천BIX 내 식료품제조업 등 우수기업을 유치해 연천을 그린바이오산업의 거점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연천의 미래를 위한 교통망 구축 사업인 경원선 복선전철도 오는 12월 개통한다. 군은 경원선 복선전철에 발맞춰 올해를 명품자족도시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지역 경제 초석 연천 분양 본격화

연천BIX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1·2차 분양을 마치고 오는 3월 3차 분양에 들어간다. 연천BIX는 평당 80만원의 낮은 분양가가 강점으로 꼽힌다. 수도권 타 산업단지의 평균 분양가격인 150~160만 원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37번 국도 전 구간 개통, 서울~문산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원선 복선전철 개통 등 교통 여건의 호재도 있는 만큼 기업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기 분양을 위해 경제 관련 협회, 기관과 연계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통합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35% 감면 등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기업 맞춤형 현장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우수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서울과 연천 잇는 경원선 복선전철 개통

경원선 복선전철이 공정률 80%를 넘어서며 순항하고 있다.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은 서울과 경기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사업이며, 동두천~연천 구간은 총 20.9km로 복선 전제 단선으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경원선 전철이 완공되면 현재 소요산까지 운행하는 수도권 전철이 연천까지 이어진다. 2023년부터는 연천에서 용산까지 약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게 된다.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경원선 복선전철이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은 물론 향후 연천~철원 전철연장사업과 백마고지~월정리 복원사업을 통해 대륙으로 이어지는 철도망 시대를 여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태관광도시 인프라 구축 속도

유네스코 2관왕 연천의 강점을 살린 생태평화도시 조성도 본격화한다. 군은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민 주도의 생태특화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군은 총예산 4억 2000여만원을 들여 생태관광 거점 마을을 조성하고 군 도시생태환경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 10곳도 새롭게 단장한다. 총예산 18억 6000만원을 들여 1월부터 12월까지 지질명소를 정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백의리층 및 재인폭포 관광시설을 정비하고, 로컬 관광 크리에이터를 양성할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한 관광콘텐츠도 개발된다. 군은 세계지질공원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험형 레저스포츠 지오카약 사업을 통해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마련과 DMZ 평화의길 테마노선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경원선 복선전철 등 연천의 미래를 위한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접경지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훈

김태훈

[다른기사 보기](#)